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이론화 표방(標榜)과 정립



박삼서

전 교과서민원바로처리
센터장

1. 들어가는 말

교육은 인류가 일정 지역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하겠다. 이후, 정착이 본격화되면서 생각과 생활, 인간관계, 사회적 활동을 규범과 교육으로 다듬고, 그 과정에서 지식과 지혜는 자연스럽게 형성·축적되었다. 더욱이 문자를 발명·사용하고 인간관계나 생활이 좀 더 복잡해지고 원숙해지면서, 이러한 지식과 지혜를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하는 기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의도적인 교육과 제도, 이의 주요 수단인 교과서(교재)가 자연스럽게 탄생하였다.

그런데 ‘교과서 존재’에 깊이 관계하는 여러 학문(교육학, 사회학, 서지/도서관학, 출판학 등)은 이론화로 체계를 세우고 영역 확장을 지속하는데, 교과서의 교육적 존재나 그 존재의 역동적 작용은 이들 학문 못지않은데도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실정이다. 그동안 교과서 존재를 주위 학문에 포괄해

설명해도 문제가 없었거나, 원초적으로 그 존재 가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미하게 간주하여, 인류 '문화유산'이나 '문화 현상'으로 중요시하지 않은 전통적 관습에 기인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교과서 존재', 즉 이를 실체화하는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이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미 연구하여 쌓아 놓은 업적을 학문의 한 영역이란 시각으로 체계를 세워 정리하고, 독립된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접근 방법을 지금까지와는 달리해야 한다. 이에서 교과서 공동체가 교과서를 대하는 태도, 즉 교과서 연구의 시각과 관점을 혁신하고, 연구에 맥진(驀進)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조성하여, 그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축적·정리해야 한다는 표방의 당위성을 간략하게 밝혀보고자 한다.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이론화'는 '개발학'이란 말과 거의 상동성을 지닌다. 결국, 이 글은 개발학 정립의 필요성과 가능성, 당위성을 찾아 학문적 이론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그 일단의 생각을 피력해 본 것이다.¹⁾

2.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이론화 표방

가. 교과서 이론화 표방의 상황 진단과 극복

1) 이론화 표방 현황을 살펴보는 몇 가지 질문

교과서는 문명(문화) 발전과 더불어 그 형태가 무쌍하게 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사람)의 수택(手澤)을 받으며 줄곧 동락(同樂)해 왔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과서를 수지독송하여 배우고 날로 익히는 기쁨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교과서 개발의 이론화를 표방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의구심(疑懼心)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심정을 다소나마 해소해 본다는 취지에서 우선 다음 세 가지 질문과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① 지금까지 교과서를 이론 개입 없이 만들었는가?
- ② 실제, 교과서를 이론 배경 없이 만들 수 있는가?
- ③ 왜 그동안 교과서 개발 이론화를 표방(標榜)하지 않았는가?

1) 이 글은 논지의 전개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출처 『교과서 개발학』(2022) 내용(표3~12 포함)을 많이 인용하였으며, 어떤 내용에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밝힌다.

이러한 ①~③의 물음에 대하여 ‘㉠ 교과서는 매우 보편타당한 실체(만들새)이다.’, ‘㉡ 만드는 데 일정하고 확실한 정도가 없다.’, ‘㉢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 ‘㉣ 다량 생산으로 이론이 필요 없다.’, ‘㉤ 만드는 데 내세울 만한 이론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여, 물음에 문제의식으로 접근하여 해답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쳤거나 방치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①에 대하여 곰곰이 곱씹어 생각해 보면, 현재까지 좋은 교과서를 지향하여 이론을 배경으로 만들어 왔음이 사실이다. 제작 과정에 일련의 절차와 체계를 수립하여 따르고, 교육과정의 반영 방법, 내용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 방법 구현, 지면 구성, 진술 방법 등 모든 요소(요건)에서 학문적 배경과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지 않은 적이 없다. 국정, 검·인정 교과서의 심의, 심사 기준은 논리와 적합성을 배경으로 개발 이론이 가미된 교과서의 실체(만들새)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격(지위)을 부여받지 못한다. 더욱이 수정·보완의 주요 원인으로 새로운 학문 이론의 신속한 반영을 앞세우기도 한다.

앞의 언급 내용이 ①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라면, ②에 대하여 ‘교과서는 이론 배경 없이 만들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천명(闡明)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교과서를 이론 없이 만들 수 있다.’라는 현실적 모양새와 분위기를 자의전 타의전 견지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교과서 개발에 이론화 논리를 강조하거나 이를 학문으로 발전시킬 연구 표방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작금(昨今)의 연구 실태에서도 감지해볼 수 있는 문제다. 이어 ③의 물음에 해답을 찾아보고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이론화 표방으로 상황을 전화(轉化)하는 방법

교과서에는 필연적 존재로서의 유구한 역사가 있고,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엄연하게 지니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③과 관련한 문제 “왜 교과서 이론화를 표방하지 않고, 심하게 말해서 방치했을까”하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실제, 그동안 교과서를 이론을 배경으로 개발하고 수정·보완하고 개선, 유지해 왔다. 그런데 ‘왜 이들 이론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독립시키려고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는가.’, ‘이론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절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슬기로운 해답을 얻으리라고 본다.

다음은 '학생-교과서-교사' 소통과 작용에서 (A) 교과서(교재)의 위치 변화에 따른 (B) 교수·학습(수업) 상황의 대표적인 작용 유형을 구분해 본 것이다.

〈소통 상황 유형〉

구분	(A) 교과서(교재)	(B) 교수·학습(수업)
㉠	주체로 작용	객체로 작용
㉡	동등하게 상호 작용	동등하게 상호 작용
㉢	객체로 작용	주체로 작용

㉠은 교수·학습 실현에서 교과서를 중심(주체)으로 모든 활동이 이뤄지는 수업 상황을 말한다. ㉡는 소통 매개체(媒介體)로서의 교과서와 교수·학습 소통 작용(활동)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상황 유형이다. ㉢은 ㉠와는 반대로 교수·학습 소통 작용을 중심으로 하고, 교과서는 단순히 학습을 도와주는 교재, 자료의 하나로 여기는 상황을 뜻한다.

이러한 유형 구분이 논리적인가 여부를 떠나서, 교과서 개발 이론과 관련하여 ㉢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디지털 교과서의 등장으로 교육 형태가 달라졌지만,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과서로 학생을 가르치는 '한 방향(일방적) 수업 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때 수업의 질은 교과서(교재)보다는 수업 운영과 기법이라는 교사의 능력에 좌우되어, 좋은 교과서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학문적 이론으로 정치하게 교과서를 만들었는가의 여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생각 밖의 문제였다. 교과서가 그저 심사, 심의를 통과하여 자격을 얻으면 그만이지, 이론 반영의 수준이나 정도, 다양한 구현 형태를 교과서 품질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 척도로 가름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 ㉡ 상황에서는 교과서 개발 이론 문제를 관심 있게 취급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부터는 교과서가 학문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반영, 구현하면서 개발한다는 점을 표방해야 한다. 표방을 최고로 뒷받침하는 방법은 교과서 편찬지침이나 국정, 검·인정 자격 부여 심의, 심사 기준에 학문적 이론 반영이 다양하게, 정치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검·인정 기준을 '㉠ 학문적 이론 구현 심사영역', '㉡ 반영 여부 관련 심사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방법이다. 그래야만 교과서는 학문적 이론이 정교하게 상호 작용하는 완결된 유기체로, 이

론이 살아 움직이는 응결체로 탄생한다.

나. 교과서 이론화 표방의 토대(土臺) 마련

1) 성장기 필수(必修) 반려자로서의 교과서 위상

유아원, 유치원에서는 물론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중·고 12년 동안은 인격 형성의 매우 중요한 시기로, 좋은 싫든 간에 매일 교과서(교재)를 마주하며 함께 생활한다. 아무리 보조(학습) 교재가 범람한다고 하지만, 인격 형성 면에서 교과서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드물다. 교과서는 배울 내용의 기본을 제공하고, 교수·학습의 길잡이가 되며, 학습의 효과를 최고로 발휘하도록 체계화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성장기 인격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교과서와 같이 생활하면서 사람 됨됨이를 은연 중에 갖추게 된다.

옛적 어느 시기에는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누워[行住坐臥]서도 교과서는 최고의 읽을 거리였다. 그때에는 교과서만으로도 지식과 지혜를 쌓아 인격을 도야하고, 생활 방식을 터득하고, 상급학교 진학도 여기에 매달렸다. 교과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인성으로 전이되어 훌륭한 품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예를 드는 이유는 옛 추억으로 돌아가 향수를 자아내자는 뜻이 아니다. 유아·청소년 성숙기에 교과서가 인생의 여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보고자 한 의도이다.

이처럼 성장기 인성 형성의 주요 반려자(伴侶者)인 교과서가 교육의 최신 이론을 반영하여 학문적 실체를 갖추어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더욱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교과서 개념, 기능, 품질(좋은 교과서)의 의미를 괄목하게 바꾸어,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는 반려자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학문적 이론의 반영은 필연적이고, 이의 표방을 꺼릴 이유가 전혀 없다.

2) 교과서 존재 가치 상향(上向)과 긍정적 인식 극대화

기관마다 통계에 약간의 출입이 있으나 22년도 국정, 검·인정 교과서 발행종수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수학, 과학, 사회를 검정으로 전환하면서 국정은 줄고 검·인정 종수가 대폭 늘었다.

표 1 — 2022년도 교과서 발행 현황

(단위: 종)

구분	국정			검정	인정	총계
	일반	특수	확대			
교과서	75	284	75	1,002	1,047	2,483
지도서	76	-	-	538	208	822
계	151	284	75	1,540	1,255	3,305

※ 출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 정보관 자료

초·중·고를 모두 합쳐 3,305종이나 된다. 이러한 종수에 따라 실제 발행하는 부수는 통계 환경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유치원을 제외하고라도 초·중·고 학생 수를 감안(勘案)하여 교과서 발행 부수의 총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2 — 유·초·중·고·기타 학생 수

(단위: 명/ 기준: 22.4.1.)

연도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전체	일반	특성화	특목	자율	
'22년	5,879,768	552,812	2,664,278	1,348,428	1,262,348	961,714	182,801	61,424	56,409	51,902
'21년	5,957,118	582,572	2,672,340	1,350,770	1,299,965	961,275	198,663	63,181	76,846	51,471

※ 출처 : 교육부 2022년도 교육 기본 통계 조사(22.8.30.) (일부 조정하여 구성)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도 학생 1인당 10책(권) 내외를 배부받는다고 가정하고, <표 1>과 <표 2>를 조합해 보면, 의무교육으로 수천만 부의 교과서가 무상으로 발행, 공급되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학부모용을 비롯해 여분 교과서를 합치면 부수는 더욱 늘다고 하겠다.

이러한 엄청난 발행 부수의 교과서가 개발 이론을 등한시하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교과서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과서가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함으로써, 심리를 자극하는 학습 동기 유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절차와 구조, 이에 따라 학습 목표를 의도대로 손쉽게 달성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처럼 교과서에 대한 기본 신뢰는 학문적 이론을 배경으로 개발한다는 데 있다. 교과서를 이론으로 개발한다는 표방은 존재 가치를 높이고 긍정적 인식을 극대화하여, 업

청난 부수로 발행되는 교과서가 폐휴지나 쓰레기로 전락하는 순환 구조를 단절하게 할지 모른다.

3) '더 좋은 교과서' 개발과 교육 발전

교과서 개발에 원리 체계를 수립하고 이론화하는 근본 목적은 '더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고, 이를 유지·관리 개선하는 데 있다. 더 좋은 교과서 개발은 교육을 더 좋은 교육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한다.

'더 좋은 교과서'에서 '좋다'라는 의미는 교과서 개념, 기능과도 관계하며, 특히 유기적·역동적·다원적·상황적·유동적·철학적으로 존재하는 방식과 밀접하다. 여기에 좋은 교과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품질 요소를 포함한다.

① 교육(학습) 목표 안내, ② 교육과정 반영, ③ 교육(학습) 수준 제시, ④ 교육(학습) 내용 표준화, ⑤ 교육(학습) 내용 제시, ⑥ 교육(학습) 자료 제공, ⑦ 교과서(교재) 구성 안내, ⑧ 교과서(교재) 활용(사용) 안내, ⑨ 교수·학습 실현, 안내, ⑩ 교육(학습) 결과 확인/평가 자료·방법 제시, ⑪ 교과서(교재) 품질 유지, ⑫ 교육이념 구현(세계 인식) 등

위의 좋은 교과서 품질 요소는 선언적·개념적 언어의 구사이다. 이러한 품질 요소를 개발 이론으로 체계를 세우고, '잘', '이상적으로', '적절하게', '알맞게' 등 '기능 언어' 수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만듦새로 전환되어야 좋은 교과서가 태동한다.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지향은 더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좋은 교과서'와 '더 좋은 교과서'의 차이점은 '정적', '동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더 좋은 교과서'는 교육환경 변화에 응전하여 살아 움직이고, 미래 지향으로 앞서가는 교과서를 말한다. 그리하여 더 좋은 교과서는 새로운 교과서 문화를 창조하고, 주도적으로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 결국,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이론화는 더 좋은 교과서 개발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4) 체계적인 교과서 품질 향상과 관리

일반적으로 교과서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오류 등 수정·보완을 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급속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하려면, 교과서 개발의 전(全)

과정에서 수정·보완의 연속으로 대처해야 한다.

① 최신 교육(통계 등) 자료의 교체, ② 새로운 교육 이론의 도입, ③ 교수·학습 과정의 개선, ④ 효율적인 설명 방법의 구안, ⑤ 학습 효과를 확대하는 편집·디자인 등 수정·보완은 교과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제2의 창조이다. 이러한 수정·보완의 연속 행위는 상호 보완하는 위치에서 품질 관리와 접맥한다.

‘품질 관리’는 통제와 감독의 의미가 아니라 수정·보완하여 품질을 유지, 개선, 개편, 지원하는 실제적 적용을 도와주는 개념이다. 품질 관리는 교과교육, 교육과정과 연관하여 교과서 개발 계획에서부터 구성, 활용, 평가와도 긴밀하게 연동한다. 즉, 교과서 존재 그 자체가 품질 관리 체계요, 품질 관리 요소와 관점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교과서 개발의 이론화는 품질 관리 이론과 직결되며, 체계적인 품질 관리로 교육의 질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 정책적 품질 관리의 하나인 편찬지침, 검·인정 기준은 이론 반영을 검토하는 방편이다. 그러므로 검·인정 기준을 비롯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교과서 평가 기준을, 구체적인 이론 개발과 적용, 이론화 표방으로 더욱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5) 창조적 ‘교과서 문화’를 ‘문화 현상’으로 발전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일반 도서(책) 문화는 있는데 교과서 문화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교과서 문화’란 ‘교과서가 우리 인간에게 베푸는 정신적·물질적 성과로 존재에 가치를 더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일’이라고 범박하게 풀이할 수 있다. 교과서 문화는 교과서를 대하고 취급하는 태도에서부터 교과서에 담겨 있는 지식·정보를 끄집어내고 활용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방식과 밀접하게 작용한다.

‘더 좋은 교과서’는 새로운 교과서 문화를 창조한다. 앞으로 교과서 자체 존재 방식이나 가치, 이와 관련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시대의 변화에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그러나 교과서 개념과 형태는 변할지 모르지만, 그 본질적 가치는 없어지지 않는다. 인류는 이러한 본질적 가치를 ‘더 좋은 교과서 문화 창조’로 승화하여 이어져 왔다.

교과서 문화는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는 힘이 가치 패턴으로 전화하여 ‘교과서 문화 현상’으로 발전한다. ‘문화 현상’은 “사회 일반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와 같이 인간의 문화생활에 의하여 생기는 모든 현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우리말샘)이다. 이에서 교과서 문화 현상은 “교과서와 관련한 인식 및 태도, 교육, 학문, 제도 등에서 교육 공동체 생활에 교과서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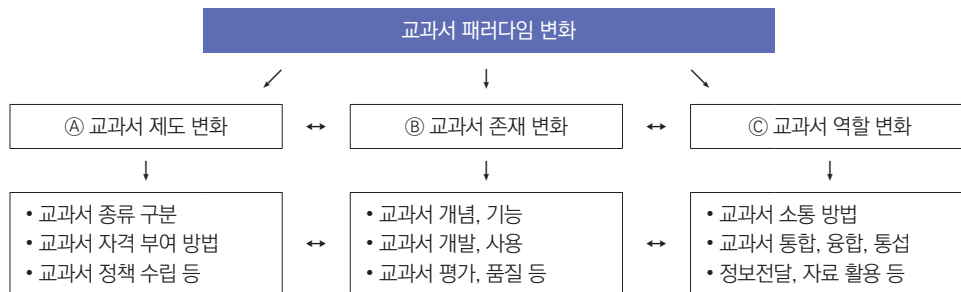
앞으로는 의도적으로 교과서 문화를 창조적으로 형성하고 교과서 문화 현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문화는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것처럼 교과서 문화도 당연히 진화하는데, 이러한 문화의 진화를 교과서 개발 이론으로 선도하고 이끌어야 한다. 교과서 개발 이론화를 강조하고 표방하는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

6) 미래 교과서 패러다임 변화에 조응(照應)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IoE, Internet of Everything),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초지능(Super Intelligence)과 함께,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MR, Mixed Reality) 등으로 대표된다. 여기에 로봇공학, 생명공학, 3D 프린팅, 나노기술 등의 분야가 중심 흐름을 이루어 인간관계와 의사 결정 방법, 생활의 패턴 등을 무쌍하게 바꾼다. 요즈음에는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용어가 학문과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되어 가는 모습이赫赫(赫赫)하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학교 패러다임의 변화로, 다시 교과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한다. 교과서 패러다임 변화는 교과서 제도, 존재, 역할 등의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표 3 — 교과서 패러다임 변화 구조



교과서 패러다임 변화는 ‘혁신’이라는 변화와 ‘비전’이라는 미래 지향이 공존한다. 교과교육과 교육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주체나 객체 작용에서 교과서의 역할과 위상이 변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용, 구조, 운영(활용), 상호 작용 등 관련 모든 사항이 변화한다.

여기에 교과서 개발에 이론화가 절실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미래 지향의 교과서 모습은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이론의 개발과 자연법칙에 합당하는 적용에 달렸다. '적자생존(適者生存, survival of fittest)'의 자연법칙에 순기능으로 변화해야 살아남는다. 이러한 살아남으려는 힘을 '자연선택(自然選擇, natural selection)의 힘'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 존재론의 학문적 이론화와 이의 표방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과서 변화법칙'의 기본이다.

3.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이론화 정립

가. 학문의 성격에 합체(合體)하는 원리와 이론

교과서 존재, 교과서 개발의 이론화는 필요성, 당위성과 함께 기본적으로 '원리', '이론', '학문'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비교해 보면, 일련의 의미 상관에서 사물과 사상(事象: 사실과 현상)의 잠재한 면목을 유추하여 끌어낼 수 있다.

① 원리(原理, principle/ fundamentals)

•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표준국어대사전)./ •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고려대한국어대사전)./ • 사물의 기본이 되는 이치나 법칙(동아 새국어사전).

② 이론(理論, theory)

•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표준)./ • 사물이나 현상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일반화한 체계(고려대)./ • 낱말의 사물이나 현상을 일정한 원리와 법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 체계(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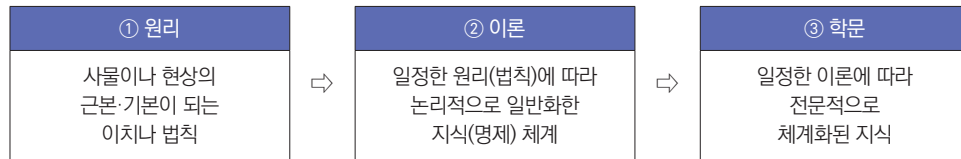
③ 학문(學問, disciplines/ study)

•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힘. 또는 그런 지식(표준)./ • 일정한 이론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체계화된 지식.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통틀어 이르는 말(고려대)./ • 일정한 이론에 따라 체계화된 지식(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통틀어 이르는 말)(동아).

'학문'이란 말은 인문, 사회, 과학은 물론 특히 철학, 종교 등 분야에서 다양하게 의미

역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을 참고만 하고, 사전 중심 뜻풀이를 대상으로 연결 상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들 용어의 의미가 애초부터 질서정연하게 연관된 것은 아니다. 다음은 교과서 개발의 이론화 필요성, 당위성을 찾아본다는 취지에서 사전적 의미를 종합하여 의미의 층위, 넓이, 관계 등을 견주어서 이행의 구조를 상정해 본 것이다.



①→②→③의 관계는 상호 연결 작용으로 자연 이행의 가능성을 보인다. 즉, 사물과 현상의 기본적인 이치와 지식, 법칙[원리]은 논리적으로 질서와 체계가 형성[이론]되면,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일정한 이론에 따라 체계화된 지식[학문]으로 진전하는 순차는 너무 자연스럽고 순리적으로 보인다. 원리가 구체화하면 이론화는 스스로 체계를 형성하며, 이론화는 학문의 영역을 정립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학문의 정립은 기본적으로 원리의 합리적인 설정과 논리성이 확연한 이론 확보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인간 발달에서 걸음마(원리)-걷기(이론)-달리기(학문)의 진전에 비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이론화는 교과서 문화 현상에 달리기를 할 수 있게 한다.

다음과 같이 학문(學問, disciplines)의 종류를 언급하면서 학문을 정의한 방식은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이론화 당위성을 더 명백하게 한다.

학자들이 연구 활동을 한 결과를 축적해 놓은 지식 체계.

학문은 지식 체계로서의 학문과 활동으로서의 학문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로서의 학문은 그 결과를 낳기까지의 「과정」, 즉 활동으로서의 학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학문에는 이때까지 그 분야의 학자들이 발견, 축적해 놓은 개념과 탐구 방법이 있으며, 현재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개념과 탐구 방법을 써서 각각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는 활동을 한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와같이 「학문」을 교육내용으로 할 때는 이 두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²⁾

2) 서울대학교 교육학연구소(1995), 『교육학용어사전』(하우동설)

학문을 ㉠ 지식 체계로서의 학문, ㉡ 활동으로서의 학문으로 구분하고, '㉢ 결과로서의 학문'을 추가하였다. 학문의 종류가 이들로 한정되지 않지만, ㉠, ㉡, ㉢은 교과서 개발과 존재 방식에 모두 관여하는 학문으로서의 구성 및 조장 인자로 작용한다.

이치, 법칙, 지식이 원리-이론-학문으로의 순차 이행으로 체계를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은, 교과서 개발을 학문적으로 이론화할 수 있는 속성과 합체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교과서 개발에 적용한 원리나 이론으로도 '교과서 개발학'이란 학문적 홀로서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나. 유기적·생태적 존재로서의 학문적 내재 역량

교과서를 유기체(有機體)로 간주하면 교과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보이지 않았던 정연한 실체가 밖으로 드러나 보이게 된다.

유기체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 ①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
- ② 생물처럼 물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생활 기능을 가지게 된 조직체

①은 물론 ②의 의미도 포괄하여 교과서를 '하나의 완결된 유기체, 생명체'로 조감하면 교과서의 존재와 생명력은 또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교과서를 유기체, 생명체로 여기기 위해서는 '교과서 생태계'에서 어떤 지위를 가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과서가 '교과서 공동체'에서 좋은 교과서로서 가치 있는 '교과서 생명력'을 갖추거나 유지하려면, 아주 복잡하게 상호 의존 관계로 '교과서 환경'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존재해야 한다. 이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 탄생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교과서 생태]

교과서가 사회,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상호 관계를 유지하며 유기체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말한다.

[교과서 생태계]

교과서가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둘러싸고[외위(外位)] 있는 유기적 존재 체계를 뜻한다.

[교과서 생명력]

교과서 생태계에서 '좋은 교과서'로서의 역동적 개념과 기능, 가치를 유지하는 힘을 뜻한다.

[교과서 공동체]

교과서 존재, 즉 개발, 사용, 평가 등 생명력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나 관련 조직체를 말한다.

[교과서 환경]

‘교과서 생명력’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유기적·무기적(無機的) 주위 생태(인적·물적·재정적·법률적 등)를 말한다.

[교과서 생태적 지위]

‘교과서 생태’ 속에서 ‘교과서 공동체’와 작용하면서 차지하고 있는 가치나 위치, 생명력을 의미한다.

[교과서 생태학]

교과서와 ‘교과서 공동체’, ‘교과서 환경’ 등과의 관련 작용, 곧 ‘교과서 생태적 지위’를 연구하는 학문을 뜻한다. ‘교과서 생태학’은 곧 학문의 범주나 내용에서 ‘교과서 개발학’과 연결된다.

교과서는 ‘유기적 생명체’로서 교과서 자체 내 구성 간의 내재적 작용과 교과서 밖에서 관여하는 모든 요소와의 외재적 작용으로 유기적 응결력을 키운다. 이를 하나의 예시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표 4 — 교과서 유기적 관계와 작용

← (A)유기적 관계 →		
↑ (B) 유 기 적 관 계 ↓	거시 구조	미시 구조
	교육과정 반영	성격, 목표, 내용(성취 기준), 방법, 평가 등
	기초 개념 구현	교과서 개념, 기능, 품질 등
	교과서 구성	내용 선정, 조직, 지면 구성, 진술 방법 등
	교수·학습 활동	목표, 모형, 방법, 기술, 환경, 전략 등
	교과서 활용	목표, 구성, 교수·학습, (활용), 평가 등,
교과서 평가		목표, 구성, 교수·학습, 활용, (평가) 등

교과서의 유기적 관계는 횡적인 (A)와 종적인 (B)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개념이다. 물론 거시적 구조 관계뿐만 아니라 미시적 관계에서도 유기적으로 연결, 작용하는 생명체라는 말이다. 교과서가 유기적 구조라는 모형은 좀 더 치밀하게 여러 모형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과서를 유기적·생태적 존재, 곧 생명체로 간주하면 이론화할 영역과 체계, 계통 수립이 매우 손쉽다. 유기체는 구성 요소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므로, 접근 방법이나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교과서의 형태나 구조가 다양하고 치밀하게 보인다. 부분의 안목

으로 전체를 조감하고, 일부의 관점으로 작용 양상을 일괄하여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이론화는 이들 요소의 존재 원리, 요소 간의 유기적 작용을 학문적 연구 활동으로 무한히 연장하고, 나아가 독립된 학문의 영역도 가시화하기가 한층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다.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성격과 이론화 시너지

교과서는 기초 과학(fundamental/basic science), 순수과학이라고도 하는 '순수 학문(pure science)'과 '응용학문(applied science)'을 용광로에 녹여 만든, 가치 있는 교육적 실체이다. 순수 학문과 응용학문이 결합, 울력하여 교과서 실체를 형성하는 데 시너지를 발휘하는 형국이라 하겠다. 다음은 하나의 예로 교과서 실체(만들새)에 녹아 있는 학문 영역을 들어 본 것이다.

표 5 — 교과서 개발(이론화) 관여 학문

구분	순수 학문 관련 영역	응용학문 관련 영역
교과서 개발 (통합/융합/통섭)	교육학, 교육심리학 등	교육공학, 응용심리학 등
	언어학, 문학, 수학, 사회학, 역사학, 윤리학, 미술학, 음악학, 체육학 등	응용수학, 응용사회학, 응용 윤리, 응용미술, 치료학(언어, 문학, 윤리, 미술, 음악, 체육 등)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학 등	응용과학, 응용 물리학, 응용 화학, 응용 생물공학, (농학, 의학) 등

교과서는 내용(순수)이면서 기능·형식(응용)이 고도의 차원으로 녹아 있는 가치 결정체이다. 통합, 융합, 통섭(統攝)³⁾으로 교육적 에너지를 함축하므로 순수와 응용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통합 교과서', '융합 교과서', '통섭 교과서'는 학문의 경계를 초월한 학문의 집합체란 의미를 표상한다. 따라서 이들 학문의 접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점을 운용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교과서 이론화이다.

교과서 개발에 밀접하게 눈에 띄는 학문에는 교육학, 교육공학, 철학, 과학, 심리학은 물론 사회학, 역사학, 미학, 윤리학, 정책학 등이 있고, 미미하지만 행정학, 경제학, 재정학 등도 직간접으로 관계한다. 디지털 시대에 컴퓨터 공학은 교과서 개발에 기초이면서

3) '통섭'이란 말은 최재천 교수가 강조하여 사용하는 말로 자세한 의미는 Edward O. Wilson,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1998)(최재천 외 옮김, 『지식의 대통합 통섭』, 사이언스 북스, 2005)을 참고 바람. 여기에서 통섭은 '교과서 결합'의 한 방법으로 사용한 용어로 의미역(범위)이 똑같지는 않다.

스마트/온라인 교육에 필수 존재로 가치를 높인다.

이미 교육학 영역에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분야 등은 각 교과교육 영역으로 다시 세분되면서 교과서 개발 이론화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실질적인 분야로 편집, 디자인, 인쇄술과 제본 등도 배경 학문으로 손색이 없다. 결국,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이론화는 이들 학문의 총합으로, 가시적 학문 영역의 정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여 교과서 공동체가 울력으로 이론화 시너지에 매진해야 한다.

라. ‘교과서 + 개발’의 의미와 학문적 상응

‘교과서를 만들다.’에서 ‘만들다’를 ‘제작한다.’, ‘편찬한다.’, ‘개발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개발한다’라는 말이 교과서와의 조합에서 언중(言衆)에 가장 눈에 익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교과서와 관련하여 ‘개발’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다(표준국어대사전).
- (사람이나 단체가 무엇을) 연구하여 새로 만들어 내다(고려대한국어사전).
-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어 실용화(實用化)하는 일(동아 새국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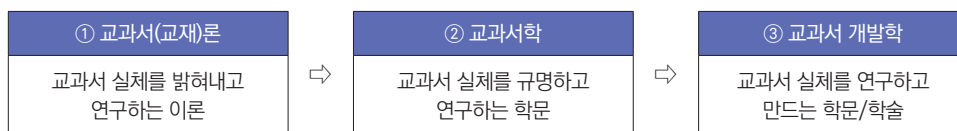
위의 풀이를 종합해 보면 ‘개발’의 주된 뜻은 “새로운 물건을 만들다.”, “새로운 생각을 내다.”, “연구하여 새것을 만들다.”, “새로운 생각을 실용화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결국, “연구하여 새로운 생각으로 어떤 실체, 새것을 만들어 이를 널리 쓰이게 한다.”라고 종합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개발’은 “연구하여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 널리 쓰이게 한다(실용화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주지하는 내용을 아주 초보적인 방법으로 종합, 풀이해 보는 것은 ‘개발학’이란 새로운 용어 설정이 타당한가를 생각해 보고자 해서이다. 즉, ‘교과서+개발+학’ 용어가 일반화하여 새로운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개발+학〉의 용어 구조를 분석해 보면 새로운 양상을 엿보게 한다. 〈학〉을 사전에 나온 여러 뜻 중에서 ‘학문(일정한 이론에 따라 체계화된 지식)’이란 뜻에 집중해 보면, 의미 연동으로 ‘개발’은 이의 뜻을 내포한 확장된 개념을 지닌다. 이렇다면 ‘교과서 개발학’은 창조, 변화, 시발의 뜻과 밀접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자

리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① 교과서(교재)론', '② 교과서학', '③ 교과서 개발학' 용어를 대비하여 용어의 의미역과 관련해서 일반화의 장단점을 찾아보는 것도 '개발학'이란 용어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불러내게 한다.



① '교과서(교재)론'은 교과서 '본질과 존재'를 밝히는 데 '이론' 자체나 성립을 강조하는 용어로, 존재 원리를 바탕으로 논리성과 논리적 태도를 중요시한다.

② '교과서학'은 '교과서론'보다는 학문적 개념으로 확대된 용어로, 교과서 '본질과 존재'를 이론을 바탕으로 자세히 따져 지식의 체계를 세우는 것을 강조한다.

③ '교과서 개발학'은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순수), 기술(응용 방면)을 포괄하는 용어로 오히려 학술(學術)의 성격이 강하다. 교과서는 순수 내용에 응용을 포함하고, 실제 만드는 절차나 과정은 응용학문을 원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교과서 개발에 관여하는 다양한 학문 이론은 물론, 존재 방식에 관련하는 모든 요소의 교육적 작용, 상태, 평가, 개선 등을 연구하는 학문의 한 분야이다.

결국,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이론화', 이를 달리 표현해서 '교과서 개발학'은 "다양한 '교과서 존재 방식'에 질서를 부여하고 체계를 세워, '교과서 존재'의 배경을 학적 이론으로 정립하는 학문 영역이다."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 교과서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 교과서 개념, 기능, 좋은 교과서 의미를 따져보는 것, 교과서 정책에서 구성, 활용, 평가의 원리를 궁구하는 것, 품질 관리 요소나 관점을 체계화하는 방법도 질서 부여의 한 방법이다.

여기에 참고로 '개발학'의 용어가 현재 많이 통용되는 또 다른 의미와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발교육', '능력개발'이란 용어에서 '개발'은 "자기(학습자)가 본래 지니는 능력을 스스로 더 나아지게(발달하게) 한다."라는 의미이다. 현재 이를 학문적으로 발전시켜 '개발학'이란 독립용어를 일반화하고 있다. 이 경우 개발학의 의미는 교과서와 관련한 개발학의 뜻과는 확연히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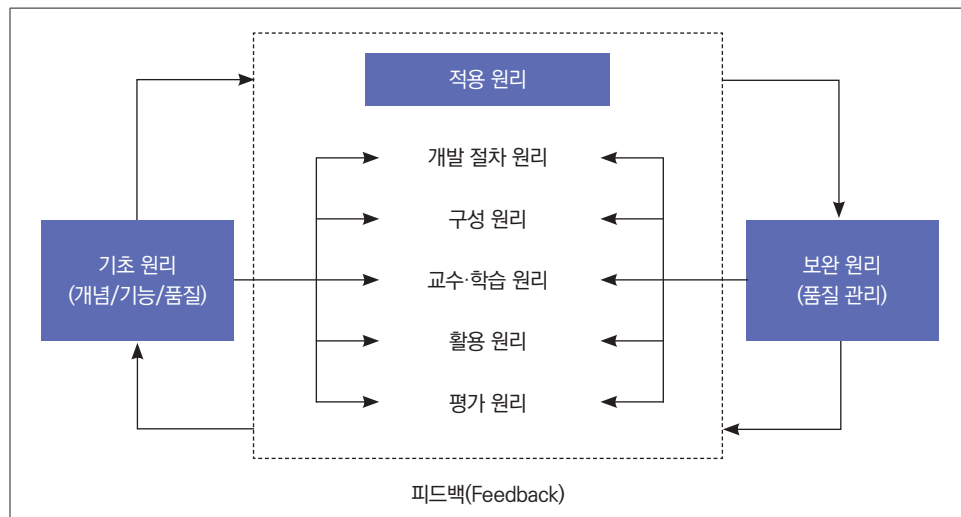
4.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이론화 발전

가. 교과서 존재의 이론화 연구 체계 수립

교과서 개발의 이론화는 교과서 본질과 존재론의 학적 배경을 찾아보는 연구 행위이다. 이를 무난하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어떤 구조로 존재하는가, 즉 ‘교과서 존재 원리 체계’를 먼저 상정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존재 원리 체계는 그대로 교과서 개발의 이론화 원리 체계를 이루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교과서 존재 원리 체계’는 ① 기초 원리, ② 적용 원리, ③ 보완 원리를 순환 구조 모형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교과서의 개념, 기능, 품질은 교과서 실체를 이루는 ‘기초 원리’이다. 기초 원리는 교과서 실체를 개발하는 절차나 구성 방법,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적용 결과의 성과를 가늠하는 ‘적용 원리’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다시 좋은 교과서로서 본래의 개념과 기능, 품질을 유지, 개선하게 하는 ‘보완 원리’와 역동으로 작용한다.

표 6 — 교과서 존재 원리 체계 모형



기초 원리는 개발학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뿌리가 되며, 교과서 존재에 실질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적용 원리(개발 절차, 구성, 교수·학습, 활용, 평가)로 녹아들어 튼실하게 줄기로 자란다. 보완 원리는 이들 원리를 모두 포용하여 교과서 존재에 제2의 창조로 의미를 더하거나 새롭게 하는 결실의 원리이다.

기초, 적용, 보완 원리는 질서정연하게 체계와 상호 관계를 이루며, 항상 미래 지향적으로 변신하며 순환한다.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가 건실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는 자연의 순리를 교과서 개발 이론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교과서 존재 원리 체계'는 곧 '교과서 개발의 이론화 체계'로 연결할 수 있으며, 연구 대상, 방법, 영역, 항목, 요소로 세분하는 '교과서 연구 범주 체계'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계통이 곧 교과서 개발에 학문적 이론을 곧추세우는 모멘트(moment)가 된다. 심도 있는 지속적인 연구로 순항하게 하는 분위기 조성 and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나. 이론화에 따른 용어의 체계적 정리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이론 정립은 합리적인 용어의 설정과 체계적인 정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용어의 정착은 이론화의 논리성을 확보하는 실마리로 작용하여, 학문으로서의 정립에 기반과 원천이 된다. 즉, 용어의 체계적 정리는 교과서 개발의 이론적 모습을 실체화하는데,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교과서 공동체 용어 해석과 이해에 기준을 제시한다.
- 교과서 개발, 연구 등에 기본 개념과 내용을 제공한다.
- 학문 간 통섭의 체계 설정과 이론화의 기반이 된다.
- 학문 간 연구에 모티브와 변별점을 제시한다.
- 개발학의 학문적 이론화에 기초 논리를 제공한다.
- 개발학의 지식 체계와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 개발학의 학문적 독립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개발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바탕이 된다.
- 개발학의 실제 파악과 이해에 도움을 준다.
- 개발학의 일반화·대중화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바지한다.
- 개발학 관련 학문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 '개발학 용어 사전'으로 집대성하는 기반이 된다.

교과서 개발을 이론화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새로운 의미의 용어가 필요하다. 이러한 용어는 이론화를 구체화하고 학문적 성립을 촉진한다. 그런데 용어 설정(선정)에 합리

성과 적합성을 도외시하면, 용어 정착은 사상누각(沙上樓閣)과 신기루(蜃氣樓)에 불과하다. 용어의 설정과 정리에는 학문 간 울력을 요구한다.

이처럼 교과서 개발의 이론을 심화하려면 새로운 용어의등장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용어 탄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기존 용어와의 의미 교섭과 맥락이 자연스럽게 상보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기본 개념의 설명도 학술적 이론으로 정연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교과서 개발 이론화가 성숙하면, ‘교과서 개발학 용어 사전’ 편찬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용어의 수집 범위, 기준과 계통에 따른 분류, 학문적 이론과 배경으로 의미를 해설, 규정하는 데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용어를 관점에 따라 체계를 세워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분류 체계 정립과 완성은 교과서 개발의 학문 정립과 완성을 의미한다.

다. 울력과 협력으로 ‘교과서 역량’ 키우기

앞서 ‘교과서 개발’, 개발학의 학문적 성격에서 언급했듯이 교과서 개발에 관여하는 학문은 순수와 응용을 포함하여, 어찌 보면 모든 학문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개발학은 여러 학문이 통합, 융합, 통섭으로 맞닿아 서로 교섭하는 또 하나의 학문 영역이다. 교과서는 학제성(學際性)을 지닌 가시화된 교육의 실체이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학문 간 연구(學問間研究, Interdisciplinary study)’를 기반으로 교과서 실체를 분석하고 밝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즉,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이론화 정립과 정착은 관여하는 모든 분야의 학문적 울력 없이는 성취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교과서 개발의 이론화 정착은 개인과 몇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성질이 아니다.

미시적·거시적이든 ‘교과교육-교육과정-교과서’, ‘학생-교과서-교사’ 등 교과서 존재에서, 교과서는 ‘삼위일체(三位一體)’, ‘상관 작용’으로 존재감을 밖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상관 작용으로서의 존재감은 ‘교과서 존재 역량’, ‘교과서 역량’이라 칭할 수 있고, 이 역량은 개척의 정도에 따라 작아지기도 커지기도 하여 한정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서 역량을 밝히고, 넓히고 깊게 하는 주체는 교과서 공동체의 역량에 달려 있다. 요약하여 ‘교과서 존재 역량=교과서 공동체 역량’이란 등식이 성립하고, 교과서 존재 역량은 교과서 공동체 역량 이상을 발휘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곧,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이론화의 성공 여부는 이론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실현하는 주체인 교과서 공동체의 협력에 달려 있다.

이론화의 범위와 심도를 팽창하는 우주의 모습에 비견하여, 그 범위와 심도를 확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한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교과서 개발의 이론화(개발학)는 학문 간의 울력과 교과서 공동체의 절대적인 협력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울력과 협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분위기 조성이 빨리 조성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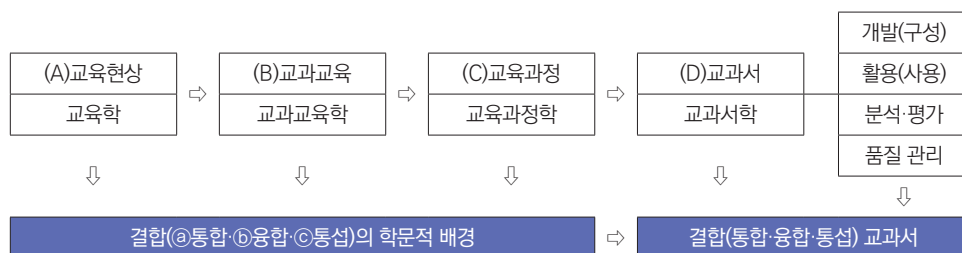
5. 미래형 교과서 개발과 이론화 실천

가. 미래형 교과서 유형 설정과 개발

1) 결합하는 교과서

‘결합’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합쳐서 하나로 됨”(동아)을 말한다. 따라서 결합이란 말은 ‘통합’, ‘융합’, ‘통섭’을 포함하는 용어로 ‘결합 교과 교육’, ‘결합 교육과정’, ‘결합 교과서’ 개념도 설정이 가능하다.

표 7 —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결합 교과서’의 학문적 배경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인문과 자연의 영역도 허물고 통합, 융합, 통섭 등으로 합체하는 추세이다. ‘통합 교과서’, ‘융합 교과서’에 ‘통섭 교과서’와 함께, 앞으로 ‘교과서 통합’, ‘교과서 융합’, ‘교과서 통섭’이란 용어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짙다. 그리하여 ‘결합 교과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 — 결합 교과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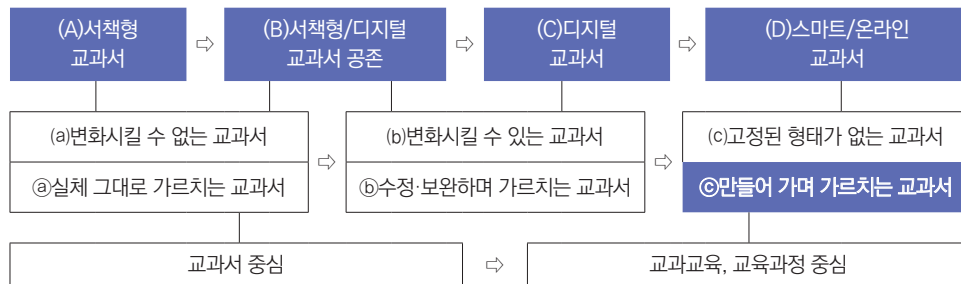
결합 종류	결합 분야	학문 경계 관계	과학적 성격	결합 기술	결합 법칙
㉠통합	교과교육 교육과정 교과서	경계 유지 결합	물리적 결합	통합 기술	통합 법칙
㉡융합		경계 없이 결합	화학적 결합	융합 기술	융합 법칙
㉢통섭		경계 작용 결합	생물적 결합	통섭 기술	통섭 법칙

지금까지 결합 교과서는 서책형 중심으로 논의되었지만, 방법론과 형태, 내용 구조에서 이론적으로 합일(合一)할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다. 앞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결합 교과서가 실질적인 모습으로 등장해야 한다.

2) 만들어 가는 교과서

사회, 교육, 학교가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만들어 가는 교과서'의 등장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A) ⇨ (B) ⇨ (C) ⇨ (D) 방향은 설명을 위한 진행 과정으로, (a)/③ ⇨ (b)/⑥ ⇨ (c)/㉞와도 밀접하게 관계한다.

표 9 — 교과서 형태와 사용 방법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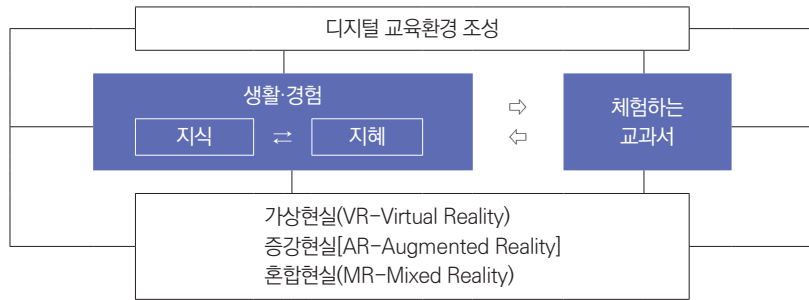
그런데 만들어 가는 교과서는 그 개념에서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위의 표에서 만들어 가는 교과서 의미역은 '(D)=(c)=㉞'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자료 활용과도 관계하여 역동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와 관련하여 '만들다'라는 뜻은 '개발한다.', '구성한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창조한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도 내재해 있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학생-교사 간 소통 방법, 소통으로 빚어진 학습 결과 처리 방법 등은 신중하게 접근할 사항이다.

3) 체험하는 교과서

교육은 경험을 담보하지 않으면 허망한 이상과 이론에 불과하다. 경험은 머릿속의 지식을 생활의 지혜로 바꾸며,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여 충동한다. 교과서는 기본적인 지식과 지혜를 담으면서 지식을 지혜로, 지식과 지혜를 경험으로 옮겨가게 하는 기제이다.

미래에는 생활 경험, 체험을 중시하는 교육의 요구가 강해지라고 본다. 그런데 이미 디지털 사회에서 가상으로 현실을 체험하는 과학적 교육 시스템이 적용되어, 이른바 '체험하는 교과서' 탄생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10 — 체험하는 교과서 존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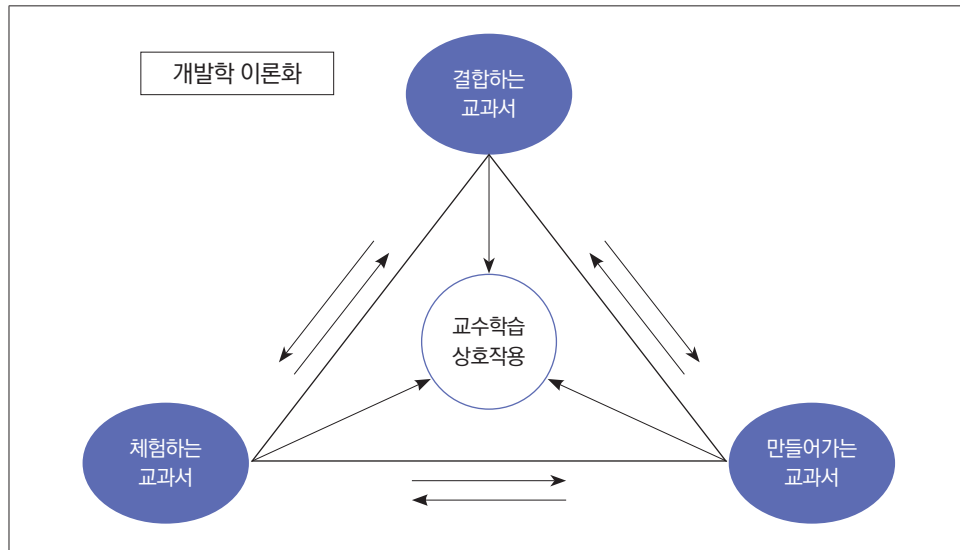
경험의 실제성을 교과서에 끌어들이는 것이 '체험하는 교과서' 개념으로, 현재의 교과서 개념에서 더 나아가, 발상의 전환을 상당히 요구하는 미래형 교과서 기능과 형태이다. '살아있는 교과서', '움직이는 교과서'로서 실제 체험을 시스템에 담아내는 '입체 교과서 개념'이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교과서, 즉 학습자가 필요 사항을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질문하면 대답해 주는 교과서다. 아마도 미래에는 오감을 실제 상황과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교과서 등장도 가능하다.

나. 미래형 교과서 존재 방식과 이론화 방향

'① 결합하는 교과서', '② 만들어 가는 교과서', '③ 체험하는 교과서' 개념은 각각에서 일반화 정도가 다르다. 결합 교과서 중 통합, 융합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고 보는데, 통섭 교과서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으로 아직은 그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실정이다. 만들어 가는 교과서의 명칭은 정의 형식으로 분명하데, 가시화된 실체를 현장에서 확연하게 활용하는 데는 보완할 사항이 너무 많다. 체험하는 교과서는 형식과 실체는 분명해 보이는데, 교육적 활용으로 정착시키는 데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개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상호 작용하는 존재 방식으로 묶어 생각하면, 이론 개발이 손쉽고 활용이 편리하다고 하겠다. '교수-학습 상호 작용'을 구심점으로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1 — 미래형 교과서 존재 방식



【① 결합하는 교과서】: 만들어 가면서 체험함

【② 만들어 가는 교과서】: 결합하면서 체험함

【③ 체험하는 교과서】: 결합하면서 만들어 감

결국, [①-②-③]은 동시에 상호 작용하며 상보적으로 존재한다. ‘결합하는 법칙’, ‘만들어 가는 법칙’, ‘체험하는 법칙’으로 각각 독립하여 작용하면서, 상보적으로 합체(合體)하는 법칙으로 역동한다. 이들 법칙을 이론으로 정착하도록 연구하는 분야가 ‘교과서 개발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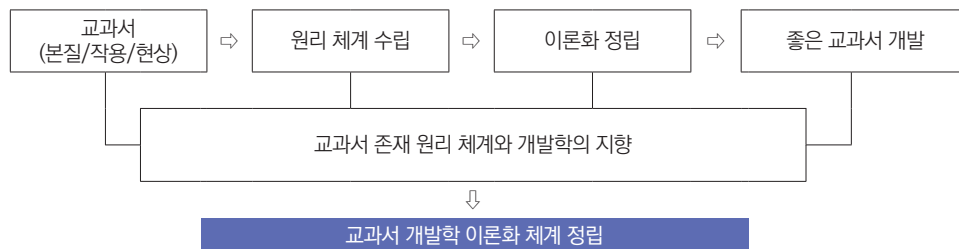
그런데 순수와 응용 등 이론적·학술적으로 가능성을 진단하고, 관련 전문가의 협조, 교육 현장에서 실험이라는 실제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체험하는 교과서’는 차원을 달리하는 내용구성, 현장 적용에 필요한 학교, 교실 등 교육환경 조성, 학생·교사의 활용 능력 배양, 교과서 유형 개발 등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도 한둘이 아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분석·연구하고, 적용의 절차와 준비까지도 제시하는 것이 개발학의 임무이다.

6. 마무리 말

교과서 개발을 이론화하여 하나의 독립한 영역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은 더 좋은 교과서를 개발, 유지, 관리, 개선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론화'란 지향점에 도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론화의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은 관련 단계, 곧 하나의 '학문적 이론화 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12 — 학문적 이론화 체계와 지향



교과서 개념, 기능, 품질의 바탕이 없으면 학문적 이론의 성립이 어렵다. 이를 교과서 존재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이치나 법칙, ‘원리, 이론화 체계’ 수립의 근거로 삼고, ‘교과서 존재 원리 체계’와 역동적·순환적으로 연결하여 독립된 ‘학문의 체계’로 진전시켜야 한다.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이론화(개발학) 필요성은 가능성·당위성으로 발전한다. 이는 교과서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고, 존재 의미를 다른 국면으로 전환한다. 이 모두가 순행하면 독립 학문 영역을 확보하고, ‘더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여, 교육의 발전과 세계 국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 이를 빠르게 자리 잡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의도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지금까지	앞으로
교과서를 학문적 이론을 배경으로 개발하면서도 이를 강조거나 표방하지 않음	교과서를 학문적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표방, 표명
교과서 편찬지침이나 자격 부여 기준에 개발 이론 반영을 제시하지 않거나, 일부 영역에서 미미하게 피력	교과서 편찬지침, 자격 부여 기준을 ① 이론 구현 영역, ② 반영 여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명하게 제시

인류 문화의 역사는 곧 교과서가 중심에 서 있는 책의 역사다. 교과서에는 책의 역사와 향기가 그대로 배어 있고, 운명을 같이한다. 교과서 개발의 학문·학술적 이론화의 중요성, 시급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루빨리 이론화(개발학) 업적과 연구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 축적하여 독립된 학문(학술) 영역으로 정착해야 한다. 울력으로 합제한 이론화 표방이 학문적 독립을 확보하는 출발이고 원동력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22), 2022년도 교육 기본 통계 조사(22.8.)
 박삼서(2022), 교과서 개발학, 서울: 국학자료원
 서울대학교 교육학연구소(1995),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손병길 외(2017),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주)미래엔·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17-6.
 Dewey(1919), Democracy and Education, 이홍우(번역·주석)(2007), 민주주의와 교육(개정·증보판), 서울: 교육과학사
 Edward O. Wilson(1998),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최재천 외(옮김)(2005), 지식의 대통합 통섭, 서울: 사이언스 북스

필자 소개

중·고등학교,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년간 근무하였고, 교육과정정책과장,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장 등을 역임하였다. 『문학교육과정론』(공저), 『한국문학과 도교사상』, 『국어교육과 생활·문화·철학』 등 저서가 있다. '교과교육-교육과정-교과서'의 학문적 연결과 이론화 정립에 노력하여 『교과서 개발학』(2022)을 출간하였다.